

원전 사업 발전을 위한 완벽한 기틀 마련

한국중공업(주)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시련을 준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가 절감을 실천하여 마침내 사업 계획을 달성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금세기기를 마무리하는 기묘년의 새해가 밝았다.

최초의 한국 표준형 경수로인 울진 3·4호기를 종합 준공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한국중공업(주)는 기자재 설계에서 제작 및 설치 시운전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월성·4호기 준공에도 마지막 손질에 정성을 쏟고 있다.

금년에 부하가 집중된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 제작에도 완벽을 기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의 성가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중공업(주) 최초의 해외 프로젝트인 중국 진산 1·2호기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여 힘겹게 개척한 통로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리고 북한 경수로가 계약이 되면 한국 표준형 원전의 성공적인 북한 진출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

올해는 민영화 작업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원전 사업 발전을 위한 완벽한 기틀을 마련하고 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 내실 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세계 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경영 혁신

99년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원 참여를 통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 활동인 MAP(Management Action Plan)을 정착하는 해로 정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품질 제일, 기술의 단순화·한국화, 생산성 향상, MAP 변화 관리, 의식 개혁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

99년 올해에도 1,300MWe급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증기발생기의 새로운 모델인 H-10을 개발할 예정이며, 영광 5·6호기에 적용될 고밀도 저장랙 및 CPTS의 Wedge Model 국산화도 계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97년에 착수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의 하나인 유리 고화 기술 개발 사업은 이미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여 기기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99년 중에는 실증 시험을 거쳐 상용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고도 정비 분야도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동남아 지역이 외환 위기로 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미주 지역 원전 개보수 분야 및 폐기물 처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력 그룹사간 또는 해외 선진 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사업 수행

1. 울진 3·4호기

울진 3호기는 98년에 준공되어 운전중에 있으며, 4호기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시운전이 진행중이므로 성공적인 상업 운전을 위하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 월성 3·4호기

97년에 이미 주요 기자재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4호기 준공시까지 현장 사무소를 중심으로 기자재 하자 처리, 시운전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3 영광 5·6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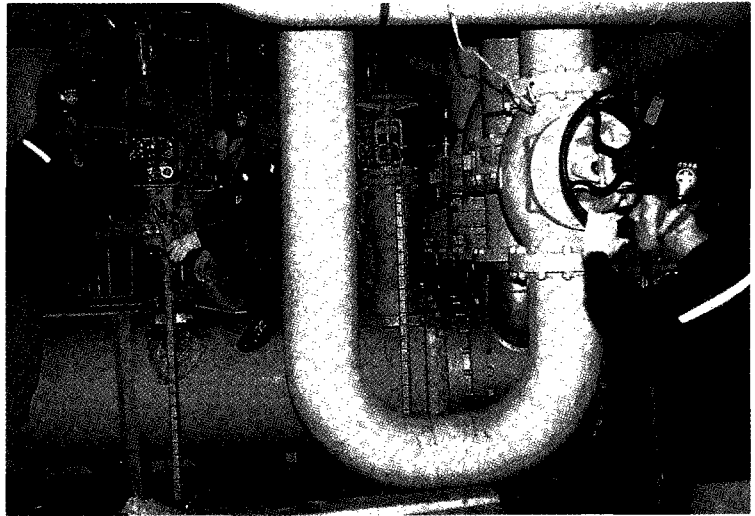
98년도 RCP Casing을 시작으로 각종 펌프 및 밸브가 납품되었고, 5호기 용 S/G, R/V은 예정대로 수압 시험을 마쳤으며, 99년 상반기중에는 현장 설치가 완료될 것이다.

따라서 99년도에는 영광 5·6호기에 당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품질에 완벽을 기할 예정이다.

4. 울진 5·6호기

금년에는 PM·제작·시공을 정점으로 하는 총괄 사업 관리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중공업(주)가 처음으로 진출한 토건 분야의 6호기 본관 기초 굴착 공사는 3월에 착수하며, 기자재 제작 분



한국중공업(주)는 올해 민영화 작업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원전 사업 발전을 위한 완벽한 기틀을 마련하고 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 내실 경영을 확립함으로써 세계 기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야에서는 원자로의 노즐 용접과 Upper Flange의 용접이 완료되었고, 증기발생기는 5호기용 2Sets의 튜빙 작업이 완료되어 99년 말까지 종합 46% 정도의 공정률을 모일 것이다.

특히 원자로 내부 구조물(RVI)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또한 6월에는 한국중공업(주)가 제작하는 보조 기기(SSLP)의 첫 납품이 있을 예정이다.

5. 북한 경수로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4호기를 참조 발전소로 하는 북한 경수로 프로젝트는 98년 7월에 KEDO 및 주계약자인 한전으로부터 주기기(원자로 설비/터빈 발전기) 공급자로 선정되었고, 또한 한국·미국·일본 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 참여 범위를 확정 한 바 있다.

한전 및 국내외 하청사와 계약 협상을 계속해 99년 상반기 중 KEDO·한

전간의 주계약 체결과 연계하여 한전·한중간의 협력 계약, 한중 및 국내외 하청사간의 하청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통 설계 분야의 설계 업무의 시작과 연계되어 기자재 제작 분야에서는 핵심 기기인 원자로 용기(R/V) 및 증기발생기(S/G)의 소재 제작이 시작될 예정이다.

6. 진산 Phase III

중국핵공업총공사가 발주한 본 공사는 700MW급 중수로 2기가 건설되는 공사로서 한국중공업(주)는 핵증기 계통의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가압기·열교환기 등 19종을 제작 공급하게 된다.

금년중 D₂O Supply Storage Tank 등을 최초로 납품할 예정이다.

99년도는 한국중공업(주)가 제작한 원자력 주기기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